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56호 발간 -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분 량	총 2매
배포일시	2025년 6월 15일(일)
보도일시	즉시

응답자 10명 중 8명,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정부 지원 필요”

- 중증질환일수록 지역 국립대학병원보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선호도 높아
- 지역 국립대학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연간 순비용 최대 약 4조 6,270억 원 추산
- 전문인력 확보(81.0%) > 응급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5%) > 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1%) 순으로 개선 요구도 높아
- 지역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 등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56호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의료정책연구실 김희년 부연구위원이다.
- 김희년 부연구위원은 “최근 필수의료 공백 문제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공공보건의료 기능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 글에서는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아닌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순비용의 규모를 추산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해 지역 국립대학병원 육성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가 지역의료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중증질환일수록 지역 국립대학병원보다 서

을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다.

- 이어서 그는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은 교통비와 숙박비만 4,121억 원에 달하며,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약 4조 6,27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 또한 “응답자의 80.9%는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응답자들은 전문의료인력의 확보(81.0%), 응급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5%), 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1%) 순으로 개선 요구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김희년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그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지역 의료자원을 고려할 때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료 공백 해소와 중증진료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슈애포커스 제456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563>